

##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안의 개발과 평가: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 중심으로

김형선\* · 심현섭\*\* · 채정현\*\*†

\*청주중앙여자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ing Plans Using Personal Color System: Focusing on the Unit ‘Daily Outfits & Clothing Acquisition’

Kim, Hyoungsun\* · Shim, Huensup\*\* · Chae, Junghyun\*\*†

\*Teacher, Cheongju Chung-Ang Women's Middle School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classes using the concept of personal color system to the section ‘Daily Outfits & Clothing Acquisition’ in the 2015 revision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find out the effects on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We redesigned a curriculum for ‘Clothing Outfits and Self-Expression’ part using personal color system, developed teaching/learning plans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examined the changes in self-identity, attitude in clothing life, and class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end of the clas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Daily Outfits & Clothing Acquisition’ unit classes which included the concept of personal color system, the students’ self-identity and attitude in clothing life were improv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 interviews, stud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lass. If the ‘Daily Outfits & Clothing Acquisition’ unit classes using personal color system is widely used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lasses, it can have positive impacts on adolescents and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to home economics teachers as a valuable class material.

Key words: 백워드 교육과정(backward design curriculum), 수업 만족감(class satisfaction), 의생활 태도(attitude in clothing life), 자아정체감(self-identity),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

† 교신저자: Chae, Jung Hyu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58, Fax: +82-43-231-4087, E-mail: jchae62@hanmail.net

## I.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자신의 외모나 이미지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의복의 영향력이 다른 시기보다 더 크다. 이 시기의 의복은 정서적·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Park(2004)은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관심이 커가는 청소년들에게 의복은 그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성격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 정립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의생활 태도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성숙한 의생활 태도를 갖는 것은 청소년기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를 거치는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자아가 불안정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보다는 타인에 의해 비춰지는 자아상에 의존하게 되고, 특히 또래 관계에서 친구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TV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영향 속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이미지를 준거로 삼아 무작정 따라 하려고 하는 동조 현상을 보인다(Lee, 2008). 이렇듯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에 전달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성숙한 의생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의생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청소년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알고 성숙한 의생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자아정체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의복과 자기표현에 대한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교육이 교과서의 이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 가정과(「기술·가정」의 가정 분야, 이하 가정과로 일컬음)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가정 교과서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의생활 태도와 관련된 교육을 다루기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만으로 구성된 가정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함으로써 의생활 교육내용의 실생활 활용도를 낮춘다. 또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교육은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의생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Kim, 2016; Kim, Park & Lee, 2007).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에서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성 있고 성숙한 의생활을 실천한다는 성취기준을 내세우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 이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퍼스널 컬러 시스템이 있다. 퍼스널 컬러 시스템은 퍼스널 컬러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컬러를 진단하는 방법인데(Shin, 2002),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의생활 교육에 이용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컬러를 찾아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가정과는 실천 교과와 성격 가진 보통 교과로서,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지식을 창조·융합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과이다(MOE, 2015). 가정과에서 실천이란 하버마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의 근원이 되는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며, 그 사회에 지배적인 그릇된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Yoo & Lee, 2010). 가정과의 실천 교과로서의 성격을 수업에 반영하려면,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토의학습이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합하다.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평소에 당당히 받아들여 왔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등장하는 퍼스널 컬러 활용 교육은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적용한 교육을 말하는데(Kim,

2018; Park, 2014; Youn, 2015), 본 연구는 이 퍼스널 컬러 활용 교육이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적용을 넘어서 ‘미’에 관한 비판적 성찰로까지 확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즉,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습득하고 적용하기 전에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수업으로 가정과의 실천 교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을 중심으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이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현 의생활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정과 의생활 단원 수업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의 ‘옷차림과 자기표현’ 부분을 중심으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수업안을 개발한다.
- 둘째, 개발한 수업안을 교실 현장에서 실행한 후, 이 수업의 효과를 알아본다.

## II. 문헌 고찰

### 1. 퍼스널 컬러

#### 1) 퍼스널 컬러의 유형과 진단

퍼스널 컬러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신체 색상으로 보통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에 의해 결정된다. 퍼스널 컬러 시스템(Personal Color System)이란 개인의 퍼스널 컬러를 분석하여 어울리는 색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을 찾아 조화로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Shin, 2002).

퍼스널 컬러의 유형은 <Table 1>과 같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E. Lee, 2012). Dorr(1985)는 각각의 색에 옐로우나 블루를 첨가하여 배색하면 조화롭다는 것을 발견하여, 피부색을 중심으로 옐로우 베이스와 블루 베이스 두 가지로 퍼스널 컬러를 분류하였으며, Jackson(1980)은 옐로우 베이스를 봄과 가을로, 블루 베이스를 여름과 겨울로 구분하여, 피부색을 중심으로 사계절로 컬러를 분류하였다(as cited in E. Lee, 2012, pp. 8-9). Fujii(1995)는 사계절 분류가 유럽계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시아계나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들은 대다수가 가을이나 겨울 타입으로 분류 되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종에 따라 퍼스널 컬러 유형을

Table 1. Personal color type classification

Scholars	Diagnosis criteria	Personal color classification				Number of types
Dorr (1985)	Skin color	Yellow base		Blue base		2
Jackson (1980)	Skin color	Spring	Autumn	Summer	Winter	4
Fujii (1990)	Skin color and hair color balance	Warm-light high contrast	Warm-dark high contrast	Cool-light high contrast	Cool-dark high contrast	8
		Warm-light low contrast	Warm-dark low contrast	Cool-light low contrast	Cool-dark low contrast	
Spillane, Sherlock (1995)	Skin color and hair color balance	Light	Soft	Light	Soft	12
		Warm	Warm	Cool	Cool	
		Clear	Deep	Soft	Deep	

다르게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퍼스널 컬러를 유럽계 백인 여성은 8가지 유형으로, 아시아계 여성은 9가지 유형으로,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계 여성은 각각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총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분류는 사계절 유형을 바탕으로 하고,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의 대비 정도에 따라 고대비(High contrast)와 저대비(Low contrast)로 나누어 퍼스널 컬러를 총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유럽계 백인 여성을 위한 분류이다. Spillane과 Sherlock(1995)은 사계절의 각 유형을 다시 3개의 유형으로 더 세분화하여 총 12가지로 분류하였다(as cited in E. Lee, 2012, p. 10). 이 외에도 퍼스널 컬러의 유형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색에 대한 이론을 처음 접하는 비전문가 집단인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퍼스널 컬러를 사계절의 4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사계절 컬러는 <Figure 1>과 같이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분류되며, 봄과 가을은 따뜻한 색 계열로 여름과 겨울은 차가운 색 계열로 구분된다. 사계절 컬러의 특징은 기본 톤과 명도, 채도 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겨울과 여름의 기본 톤은 차가움이 느껴지는 블루 베이스이고, 봄과 가을의 기본 톤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옐로 베이스이다. 겨울과 가을의 명도는 대체로 낮고, 봄과 여름의 명도는 높다. 겨울과 봄의 채도는 높고, 여름과 가을의 채도는 낮다.

퍼스널 컬러 진단은 기본적으로 피부 톤을 기준으로 하며 크기는 차가운 유형과 따뜻한 유형으로 나뉘는데, 피부 톤에서 푸른빛이 도는 차가운 유형은 여름과 겨울 유형으로, 노란 빛이 도는 따뜻한 유형은 봄과 가을 유형으로 분류된다. E. Lee(2012)에 의하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방법은 관능 평가방법, 시감측색 평가방법, 측색 평가방법의 세 가지가 있다. 관능 평가방법은 진단 드레이프를 활용하여 얼굴 근처에 대고 드레이핑 하면서 얼굴색과의 조화를 관찰하여 퍼스널 컬러 유형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관능 평가방법은 사람의 육안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시감측색 평가방법은 비색표와 피부색을 비교하여 퍼스널 컬러 유형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Shin(2002)은 오래 전부터 많은 피부색 표가 작성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 피부는 물체색과는 다른 피부 표면의 특성으로 인해 재질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고, 이 방법 역시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측색 평가방법은 기기를 활용하여 피부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측색기 자체가 크지 않아서 얼굴 전체의 피부색을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퍼스널 컬러 진단 방법으로 가장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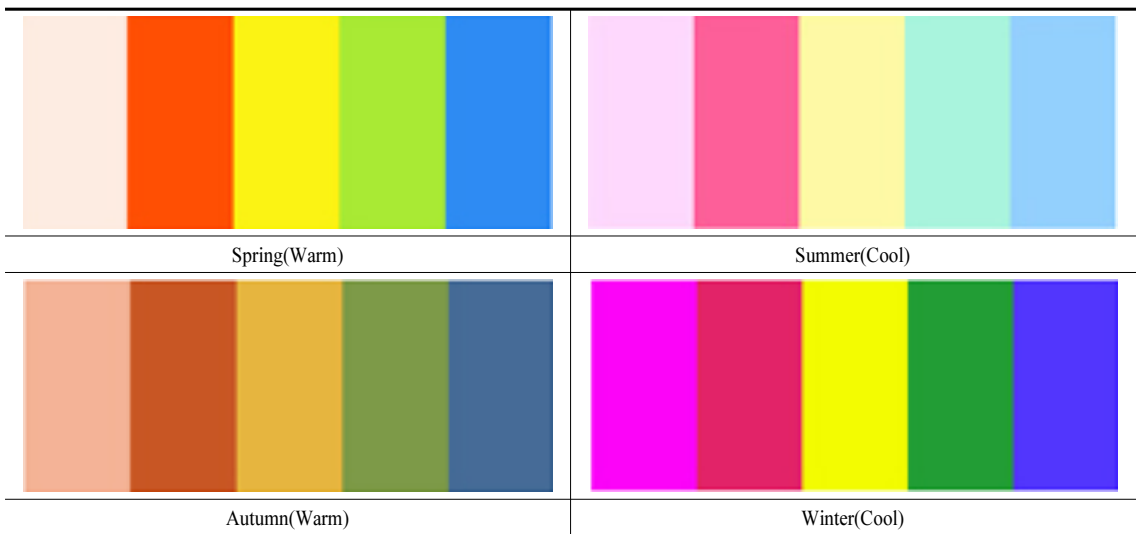


Figure 1. Four season colors

활용되고 있는 관능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가 장소가 평가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학생이 많은 학교라는 점에서 관능 평가방법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 2) 퍼스널 컬러 관련 선행연구 고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에 의하면 퍼스널 컬러에 관한 연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연구된 여러 편의 연구 가운데 퍼스널 컬러를 교육과 연계하여 연구한 사례는 퍼스널 컬러의 교과과정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Lee, 2018; Cha, 2006), 퍼스널 컬러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Kim, 2018; Park, 2014; Youn, 2015)와 퍼스널 컬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Ko, 2017)로 주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퍼스널 컬러의 교과과정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는 Lee(2018)와 Cha(2006)의 연구가 있다. Lee(2018)는 미용 전공 대학 및 대학원 학부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인식, 교육 실태와 만족도가 미용 교과과정 인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퍼스널 컬러 인식이 퍼스널 컬러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퍼스널 컬러 교육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퍼스널 컬러 교육 만족도가 미용 교과과정 만족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토대로 미용 교과과정에 퍼스널 컬러 교육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피력하였다. Cha(2006)은 국·내외 미용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와 미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퍼스널 컬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퍼스널 컬러를 도입한 교과과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 퍼스널 컬러를 메이크업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강의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퍼스널 컬러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Kim(2018), Park(2014), Youn(2015)의 연구가 있다. Kim(2018)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색채교육을 통한 디자인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이를 학생들

에게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퍼스널 컬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디자인 전공 학생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활용한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Park(2014)은 퍼스널 컬러 시스템과 주얼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그 필요성, 선호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활용한 주얼리 색채교육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Youn(2015)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적용한 장신구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수업 전과 후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수업 참여도, 색채 교육의 필요성 인식, 색채에 대한 흥미나 색채 감각을 높이는 데 있어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컬러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본 연구에는 Ko(2017)의 연구가 있다. Ko(2017)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통한 색채 미술교육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색채 미술수업의 다양성을 위해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적용이 청소년기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퍼스널 컬러 관련 연구는 미용 및 미술 교육과정에서만 진행된 상태이며, 가정과 교육과정에 퍼스널 컬러를 도입하여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Xu(2014)는 의복 디자인 요소에 선, 실루엣, 색채, 소재, 무늬, 그리고 장식인 디테일과 트리밍까지 총 일곱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얻은 개인의 신체 색상은 의복 디자인 요소 중 색채와 관련하여 개성 있는 옷차림에 활용 가능하므로 의생활 관련 내용에 적용 가능하다. 한편, 퍼스널 컬러 활용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Joung & Park, 2014; Park, 2019),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수업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Ko, 2017), 자기 이미지의 하위요인(감성적, 현대적, 이성적, 진취적, 여성적, 활동적 요인)들이 퍼스널 컬러 인식(개인선호일치, 의복착장, 관심, 직접적 인식, 활용 인식)의 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Go, 2010)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퍼스널 컬러를 자아정체감 관련 내용

에도 적용 가능하다.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과 내용 체계는 3개 영역과 6개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가 체계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퍼스널 컬러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의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이다.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과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의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이 내용 요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자아정체감을 확고히 하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자아와 의생활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MOE, 2015).

이러한 성취기준에 보다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퍼스널 컬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Jung과 Park(2014)에 의하면 무의식적으로 인지된 색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고 개성을 연출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하면서, 색이 외적으로는 개인의 이미지를 향상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내적으로는 심신의 안정과 활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였다. 이는 퍼스널 컬러가 자아정체감 형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퍼스널 컬러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로서, 이를 잘 활용하면 개성을 살리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따라서 퍼스널 컬러를 가정과 수업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각 내용 요소의 성취기준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과정에 도입한 퍼스널 컬러 활용 수업 연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특성을 지녀야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두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과정만을 활용한 연구로서 이를 ‘미’에 관한 비판적인 성찰로까지 확장하여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활용 뿐 아니라 고차원적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가정과 교육에서 강조하는 실천의 성격을 잘 살리면서 교과 역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퍼스널 컬러 활용 수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 2.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

### 1)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의 개념

Lee와 Han(1995)에 의하면 Erikson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통합성, 시간적 연속성,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 사이의 조화로 설명하였다. 통합성은 한 개인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해나감으로써 통합성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시간적 연속성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일관된 행동으로 연속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적 자아와 객체적 자아 사이의 조화는 자신과 타인이 바라보는 자아에 대한 견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Park(1990)은 Erikson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개인이 자신을 독특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역할 등을 통해 통합된 자아를 찾으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어떤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Marcia(1980)는 자아정체감이란 의미 있는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자신에게 맞도록 결합한 연속적인 동질성으로 충동이나 능력과 같은 자체 발생적인 자기구조라고 하였다(as cited in Seo, 2018, p. 11). 이와 같은 정의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자아정체감이란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를 일관성 있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신체 특징, 성격,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 인지, 정서·사회적인 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게 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개념을 확장하게 된다. Erikson(1956, 1959)은 자아정체감 형성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특히 청소년기는 외현적인 정체감 위기가 나타나는 시기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신을 탐색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만 건강한 자아개념을 지닌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 적절히 형성되지 못하면 이들은 정체감 혼미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느끼면서 열등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며(Seo, 2002),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

을 잘 확립한 사람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꾸준히 전념하며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Y. Lee, 2012). 이들은 직업선택이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일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Marcia(1966)는 자아정체감이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특성을 잘 깨달으며, 자아정체감이 덜 발달된 사람은 외적 자원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려 하는 혼미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에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사람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일관된 가치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는 개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지향성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의생활 태도라 한다. Sproule(1979)는 의복에 대한 태도를 의복의 스타일과 같은 특정 대상이나 의복 착용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특정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기질을 말한다고 하였다(as cited in Kim, 2007, p. 7).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의생활 태도는 서로 다른 의복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의복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 직업, 미적 감각, 기분, 성격 등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 태도의 조작적 정의를 위해 먼저 의생활 태도의 하위요소를 정의하였다. 의생활 태도와 의복 태도를 키워드로 모든 논문을 검색한 후, 이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생활 태도 혹은 의복 태도를 어떤 하위요소로 정의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의생활 태도 하위요소를 가운데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가정과 수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가장 잘 포함하고 있으면서 청소년기의 특성과 보다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하위요소인 심미성, 동조성, 개성 표현의 세 가지 요소를 의생활 태도의 하위요소로 선정하였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자신의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자아정체감은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대중매체나 또래집단 등 외부로부터 형성된 미의 기준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Koh와 Kim(1996)은 자아를

사회와 연결하여 객관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청소년기는 의복 착용을 통해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타인 가운데 특히, 또래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특히 크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사고와 감정, 기대와 요구 등을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을 내재화한다. 그 결과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복 문화를 형성하고 이에 동조하게 된다. 또한 연예인에 대한 모방 행동이 청소년들의 의복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Kim과 Lee(2002)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연예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그들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연예인에 대한 동조현상을 많이 보인다(Jhun, 2002; Lee, 1991; Lee, 1997).

## 2)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자아 관련 변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아 관련 변인과 의복 태도나 행동과의 관계에 관해 연구한 논문은 상당히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관련 변인을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으로 한정하고, 이들과 의복 태도나 행동 관련 논문 가운데 청소년 대상 논문에 한하여 검토하였다. 자아 관련 변인들과 의복 태도나 행동 관련 연구들은 자아 관련 변인의 종류에 따라 자아정체감 관련 연구(Lee, 1993), 자아존중감 관련 연구(Han, 2002; Park, 2004)와 자아개념 관련 연구(Hong, 1999; Lee, 1999; Park, 2006; Seo, 1995; Shim, 1991; Yun & Hwang, 2007)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Han(2002)은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의복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에 따른 의복 행동의 차이를 조사·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의복 행동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학생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심리적 의존성과 심미성이 높게 나타나며, 일반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심미성은 높고 동조성은 낮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Park(2004)은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 역할 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및 의복 태도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 역할 정체감은 유행 추구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유행 추구, 동조성, 심미성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Hong(1999)은 자아개념의 수준이 연간 의복구입비와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달라지며, 의복 선택행동은 월 평균 용돈, 연간 의복구입비,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Yun과 Hwang(2007)은 지역별 여자 고등학생의 가정적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 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정적 자아개념은 가정환경에 의해 형성된 자아개념을 말하는데, 가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동조성과 유행성은 낮고, 심리적 의존성과 개성은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가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강남지역의 학생이 강북지역의 학생보다 동조성과 유행성이 높게 나타났고, 개성은 강남지역의 학생보다 강북지역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가정적 자아개념이 낮은 집단의 경우 동조성과 유행성, 경제성에 대한 의복 행동은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강북지역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성은 강남지역의 학생보다 강북지역의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의복 행동의 지역별 차이 내용이 가정적 자아개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Lee(1999)는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의복이 자아의 한 표현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자아개념의 하위개념 중 자아평가가 의복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자아평가 점수가 동조성과 개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Park(2006)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 자아개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제품 충동 구매 성향이 높으며, 사전 의사결정 구매 성향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개성요인과 유행·과시요인을 더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Seo(1995)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과 의복 구매행동 및 구매 후 만족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의복 구매행동 및 구매 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교생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복 구매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자아개념을 확립해 감에 따라 보다 더 자신의 욕구 충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구매 태도로서 다양한 측면의 선택요인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구매행동

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의복 구매 후 매우 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고교생들이 만족이나 보통 또는 불만족해하는 고교생들보다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밝히면서, 고교생들의 의복 구매행동과 구매 후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보다는 자아개념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자아 관련 변인들이 의복 태도나 행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이를 교육에 적용하여 융합하고자 시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단원과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을 융합하여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 개념을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효율적인 교육목표 도달을 기대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 수업의 실행 결과 나타나는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충북 청주시의 Y중학교 1학년 7개 학급 남학생 101명, 여학생 82명 총 18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 후 연구를 실행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과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실행하기 전에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설문지는 Park(2003)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의생활 태도에 대한 설문지는 Kim(2007)과 Cho(2002)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본 연구과 관련이 있는 하위요소의 문항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자아정체감 설문지는 독특성, 사회성, 자율성/자신감, 자기수용, 사회적 적응력, 가치관의 여섯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생활 태도 설문지는 동조성, 개성표현, 심미성



의 세 가지 하위요소를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형식은 Likert 5단계 척도를 따른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정체감 측정 문항 전체의 Cronbach- $\alpha$ 값은 .992였고, 하위영역별로는 독특성 .898, 사회성 .970, 자율성/자신감 .950, 자기수용 .976, 사회적 적응력 .960, 가치관 .955로 나타났다. 의생활 태도 측정 문항 전체의 Cronbach- $\alpha$ 값은 .990였고, 하위영역별로는 동조성 .979, 개성표현 .973, 심미성 .982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 조사도구는 전문가(가정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의생활 전공 교수 1인)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사 받았다.

본 연구의 과정은 <Table 2>와 같이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전 조사한 후 현장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약 4주간 총 8차시에 걸쳐 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실행하였다. 수업을 실행한 후에는 개발된 수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 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이 수업을 마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직접 배포하여 실행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실험 집단의 사전·사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의 하위요소별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 수업의 실행 결과 나타나는 수업 만족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8차시 수업이 모두 끝난 후 4명의 학생과 면담을 실행하였다. 수업 만족감 조사를 위한 면담에 활용할 개방형 질문지는 Lee(2017)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총 다섯 문항(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의생활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 어려웠던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전체적인 소감)을 개발하였다.

면담은 4주 동안 수업을 실행한 후에 면담 의사를 밝힌 남학생 1명과 여학생 3명, 총 4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11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에 따라 개별 면담하였으며, 면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바로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먼저, 녹음 파일을 듣고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이 내용들 가운데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묶어 범주화하여 분석한 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한 수업의 개선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 2.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 수업안 개발

이 연구의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 수업안 개발은 고찰과 분석, 설계, 개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퍼스널 컬러와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과 이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2종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1 교과서에서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와 관련된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교육을 가정과 수업에서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현 교과서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내용을 개별 영역으로 다룸으로써 통합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론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Table 2. Research schedule

Period	Research method
2019.9.9.~2019.9.11.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 사전 설문조사
2019.9.16.~2019.10.9.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 수업 (4주 8차시)
2019.10.10.~2019.10.11.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 사후 설문조사 ‘수업 만족감’ 면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의생활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가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백워드 디자인 설계 템플릿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 적합한 8차시의 수업안을 개발하였다. 이는 8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과정안 및 교수·학습 자료와 교수·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수업안은 가정교육학 전문가 4인(현직 가정과 교사 2인, 가정교육학 전공 교수 1인, 의생활 전공 교수 1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먼저, 가정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의생활 전공 교수 1인으로부터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고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중복 가정과 연구회 소속 현직 가정과 교사 2인을 직접 만나 이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받음으로써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위 수업안 개발

본 연구에서의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위 교육과정은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백워드 디자인 설계 템플릿의 단계를 따라 설계하였다. 백워드 디자인 설계 템플릿의 단계는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학습경험 및 수업 계획하기 순으로 구성된다.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영속적 이해’나 ‘큰 개념’을 분석하면서 단원의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다. 백워드 디자인 설계 템플릿에서는 특히 이 영속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Wiggins와 McTighe(2005)는 이해를 지식의 완전 습득과 적용

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이해의 측면을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의식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설명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이나 현상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해석은 사건이나 현상의 의미를 밝혀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번역하는 능력을 말한다. 적용은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 기존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관점은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의식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본질적 질문을 도출하고, 영속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 지식과 기능을 정하였다(Figure 2).

두 번째 단계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단계에서는 두 가지 수행 과제를 결정하고, 이 과제의 평가목표, 평가요소와 채점 기준을 정하였다. Ohn(2011)에 의하면 “수행과제는 학습자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Situation)에서 어떤 목표(Goal)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상 혹은 관중(Audience)을 고려하면서 특정 역할(Role)을 맡아 기준(Standard)에 따라 결과물(Product)을 만들어내는 것이다(p. 48).” Wiggins와 McTighe(2005)는 수행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의 앞 글자를 따서 ‘GRASPS’ 모델이라고 하였다. 각 수행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은 ‘GRASPS’ 모델을 적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 준거를 우수, 보통, 미흡의 세 단계로 나누어 채점 기준을 정하였다. <Figure 2>에 나타난 단원의 목표와 본질적 질문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수행과제로 ‘나를 위한 코디네이션 북 제작하기’ 활동과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하기’ 활동, 크게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활동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의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함이었으며, 두 번째 활동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나를 사랑하고 나아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의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Table 3).

‘나를 위한 코디네이션 북 제작하기’ 활동은 의복 디자인의 요소,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 퍼스널 컬러 등 학습한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자신을 총체적으로 코디네이션 해볼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하였다.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을 개성 있고 아름답게 표현해 볼 수 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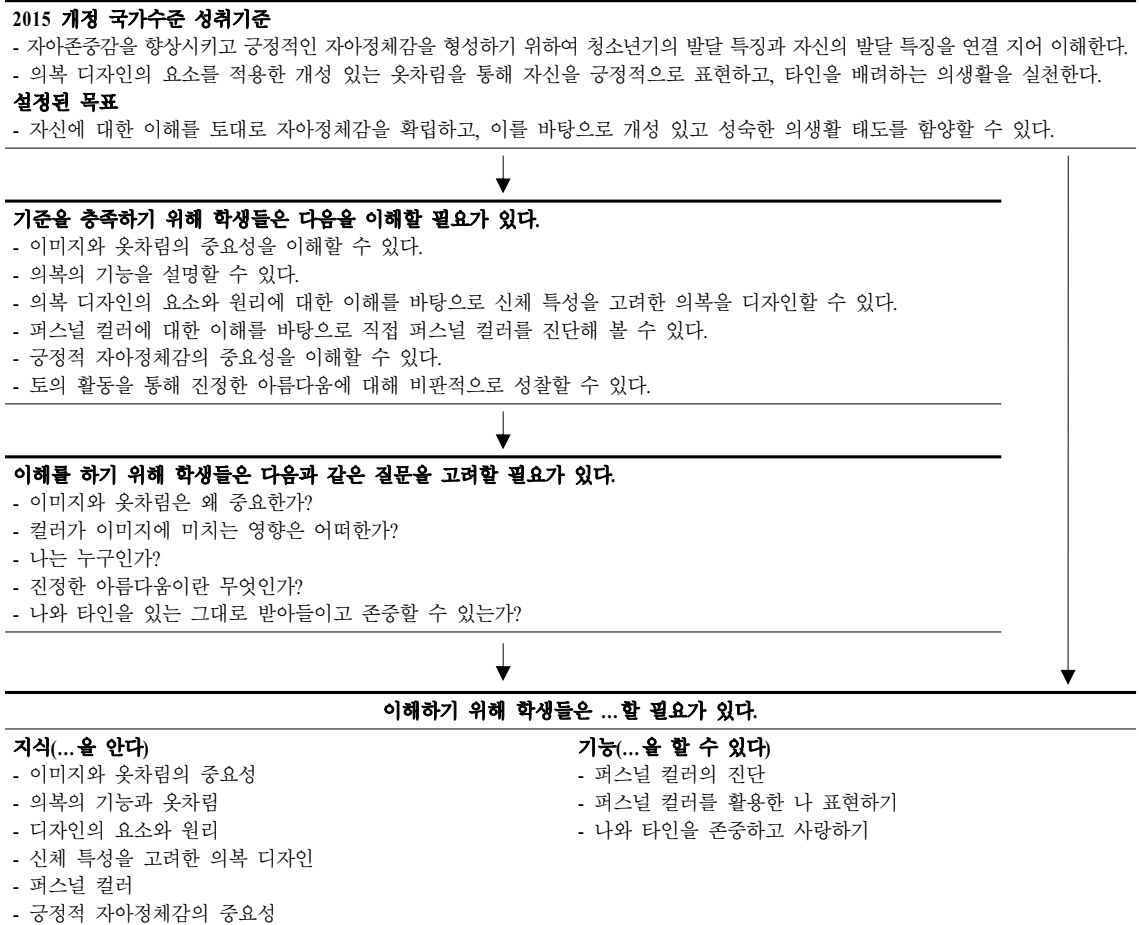


Figure 2. Guideline to check for desired results in the 'clothing outfits & self-expression'

록 하기 위함이었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수업인 8차시 수업이 종료될 때, 학습 활동지를 모두 모아 포트폴리오 평가 형태로 진행하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하기’ 활동은 7차시에 관한 ‘I feel pretty’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과제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과제에 대한 평가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토의 과정을 교사가 관찰하여 과정 평가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학습경험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Wiggins와

McTighe(2005)가 제시한 ‘WHERE TO’의 요소에 따라 <Table 4>와 같이 단원의 주요한 학습활동을 계획하였다. 단원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왜 그런지를 이해시키는 W(Where and Why) 요소는 학생들이 단원의 방향과 목적을 인식하고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본질적 질문과 수행과제에 대해 안내하였다. 학생들을 동기유발 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키는 H(Hook and Hold) 요소는 첫인상 효과 실험, 착시 현상 체험 등 단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다. 학생들이 필요한 경험, 도구, 그리고 지식을 제공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E1(Explore and Equip) 요소는 학생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 탐구하고 경험해 볼 수

Table 3. Process of determining acceptable evidence

Performance task 1		Making a coordination book for me		
평가목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베스트 컬러를 찾아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 개성 있는 나를 표현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G(Goal):	나를 주제로 한 코디네이션 북을 직접 만들어본다.			
R(Role):	당신의 역할은 퍼스널 컬러 진단 전문가이다.			
A(Audience):	코디네이션 북의 대상은 나이다.			
S(Situation):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외모와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멋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P(Performance):	이를 위해 나에게 어울리는 베스트 컬러를 직접 진단해보고 개성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책으로 만들어본다.			
S(Standards):	자신의 베스트 컬러를 찾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Scoring criteria table for task 1				
		우수	보통	미흡
코디네이션북 제작하기	적합성	자신에게 어울리는 베스트 컬러를 찾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음.	자신에게 어울리는 베스트 컬러를 찾을 수 있으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임.	자신에게 어울리는 베스트 컬러를 찾지 못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도 미흡한 모습을 보임.
	성실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활동지에 빈 칸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활동지 작성 면에서는 미흡한 모습을 보임.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활동지 작성 면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임.
Performance task 2		Real beauty is...		
평가목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의에 참여하여 미의 기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므로써 나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G(Goal):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의에 참여한다.			
R(Role):	당신의 역할은 토의자이다.			
A(Audience):	목표 대상은 동 학급 친구들이다.			
S(Situation):	동 학급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P(Performance):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민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S(Standards):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평가한다.			
Scoring criteria table for task 2				
		우수	보통	미흡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논리성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됨.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지 못함.
	참여도	토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모둠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토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는 못함.	토의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함.

있는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주요 아이디어를 재고하고 반성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수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R(Rethink, Reflect, Revise) 요소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비판적 토의 활동을 포함하였다. 자기평가와 과정평가의 기회 제공하는 E2(Evaluate) 요소는 립스틱 네이밍과 퍼스널 컬러 퀴즈게임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재능과 흥미, 학습 양식 그리고

요구를 반영하도록 계획하는 T(Tailor) 요소는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개별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진정한 이해가 잘 드러나도록 조직하는 O(Organize) 요소는 계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학습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 활동들을 차시별로 나누어 배정하였다.

최종 개발된 수업안은 8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주제가 학습의

Table 4. The list of learning experience

WHERE TO
1. 본질적 질문과 수행과제 안내하기 W(단원의 방향과 목적)
2. 초두효과 실험해보기 H(주의 환기 및 흥미 유지)
3. 이미지 게임 E1(탐구, 경험, 가능하게 하기)
4. 실험 영상을 통한 이미지의 개념과 중요성 알기 E1(탐구, 경험, 가능하게 하기)
5.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 찾기 T(학습자에게 맞추기, 개별화)
6. 의복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강의 E1(탐구, 경험, 가능하게 하기)
7. 착시현상 체험해보기 H(주의 환기 및 흥미 유지)
8.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관한 강의 E1(탐구, 경험, 가능하게 하기)
9. 신체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에 관한 강의 E1(탐구, 경험, 가능하게 하기)
10. 학습 요소를 적용한 코디네이터 활동 T(학습자에게 맞추기, 개별화)
11. 컬러 심리테스트 H(주의 환기 및 흥미 유지)
12. 색의 3요소에 관한 강의 E1(탐구, 경험, 가능하게 하기)
13. 립스틱 네이밍 활동 E2(작품과 향상도 평가하기)
14. 영상을 통한 퍼스널 컬러 진단 전후 감상하기 H(주의 환기 및 흥미 유지)
15. 퍼스널 컬러에 관한 강의 E1(탐구, 경험, 가능하게 하기)
16. 퍼스널 컬러 퀴즈게임 E2(작품과 향상도 평가하기)
17. 퍼스널 컬러 진단하기 T(학습자에게 맞추기, 개별화)
18. 퍼스널 컬러 관련 진로 탐색 H(주의 환기 및 흥미 유지)
19. 뉴스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 생각해보기 H(주의 환기 및 흥미 유지)
20. 영화감상 R(반성, 성찰, 수정하기)
21.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토의 R(반성, 성찰, 수정하기)
22. 나 선언하기 T(학습자에게 맞추기, 개별화)

논리적 연계성에 의해 순차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미지와 의복 디자인’이라는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이미지의 중요성과 의복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복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 특성에 맞는 의복을 직접 디자인해보므로써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컬러임을 이해하면서 ‘퍼스널 컬러’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퍼스널 컬러의 개념, 역사, 유형 등 퍼스널 컬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직접 진단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인 ‘건강한 아름다움’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지와 의복 디자인’, ‘퍼스널 컬러’, ‘건강한 아름다움’의 총 3개 하위 주제를 순차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성숙한 의생활 태도 확립’에 도달할 수 있다(Figure 3).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PPT, 동영상 자료, 학습 활동지, 교사용 참고자료로 구성하였다. 2차시와 3차시의 내용 연계상 PPT를 하나로 제작하였고, 영화 감상 시간인 7차시는 PPT를 따로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PPT는 총 6개로 구성하였다. 학습 활동지는 세 개의 하위 주제별로 나누어 총 12쪽으로 제작하였다. 교사용 참고자료는 PPT에 모두 수록하기는 어렵지만 수업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 구성하였는데, 1~5차시까지만 포함되어 4개로 구성하였다.

## 2.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은 ‘이미지와 의복 디자인’, ‘퍼스널 컬러’, ‘건강한 아름다움’의 3가지 주제로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안도 이에 맞춰 1~3차시, 4~6차시, 7~8차시 3가지로 나누어 개발하였다(Figure 4).

<b>Subject 1</b>	이미지와 의복 디자인		
<b>Goal 1</b>	이미지 형성에 있어 옷차림의 중요성을 알고, 의복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b>Session</b>	<b>Subject</b>	<b>Goal</b>	<b>Activity</b>
1	외모와 이미지,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의 중요성	이미지 형성에 있어 옷차림의 중요성을 알고, 의복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미지 게임, DISC 행동유형 테스트, 이미지 명함 디자인
2~3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착시현상 테스트, 나도 코디네이터
↓			
<b>Subject 2</b>	퍼스널 컬러		
<b>Goal 2</b>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퍼스널 컬러를 직접 진단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에 대한 발표와 평가회를 통해 퍼스널 컬러 진단의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b>Session</b>	<b>Subject</b>	<b>Goal</b>	<b>Activity</b>
4	퍼스널 컬러의 이해	퍼스널 컬러의 전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컬러 심리테스트, 립스틱 네이밍, 톤알못 벗어나기
5	퍼스널 컬러의 진단과 활용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퍼스널 컬러를 직접 진단하고 활용할 수 있다.	나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6	진단 포트폴리오 작성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에 대한 발표와 평가회를 통해 퍼스널 컬러 진단의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진단 포트폴리오 작성 및 발표
↓			
<b>Subject 3</b>	건강한 아름다움		
<b>Goal 3</b>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해보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b>Session</b>	<b>Subject</b>	<b>Goal</b>	<b>Activity</b>
7	영화 관람 'I feel pretty'	영화를 감상하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영화 감상
8	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나 선언하기
↓			
<b>Publisher</b>	천재교과서(이춘식 외 12명 저)		
<b>Unit title</b>	대단원	II.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중단원	2. 옷차림과 의복마련	
	소단원	2-1. 옷차림과 자기표현	
<b>Final goal</b>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 있고 성숙한 의생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Figure 3. Overview of each unit by sessions

1) 1~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주제: 이미지와 의복 디자인)

1차시부터 3차시까지의 수업은 ‘이미지와 의복 디자인’에 관한 수업으로 이미지와 옷차림의 중요성을 알고, 의복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

복을 직접 디자인해볼 수 있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1차시부터 3차시까지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설명식 교수법을 따랐으나, 프로젝트 학습법과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법에 따라 다양한 학생 활동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쌍방향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먼저, 1차시 수업을 시작하면서 전체 수업의 차시별 주제

Table 5. Teaching/learning materials of 'daily outfits & clothing acquisition' unit using personal color system

	1~3 Sessions	4~6 Sessions	7~8 Sessions	Total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시 PPT</li> <li>2~3차시 PP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시 PPT</li> <li>5차시 PPT</li> <li>6차시 PP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차시 PPT</li> </ul>	6
동영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초의 법칙</li> <li>옷차림의 중요성</li> <li>유니세프 공익광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생컬러 찾기</li> <li>라이징 JOB 퍼스널 쇼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I feel pretty</li> </ul>	6
학습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시 활동지</li> <li>2~3차시 활동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시 활동지</li> <li>5차시 활동지</li> <li>6차시 활동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차시 활동지</li> </ul>	6
교사용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시 보조자료</li> <li>2~3차시 보조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차시 보조자료</li> <li>5차시 보조자료</li> </ul>		4
계	9	10	3	22

를 칠판에 붙여두고, 이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를 위해 순차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인지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8차시 수업의 전체 흐름에 대해 미리 설명하였다. 그리고 첫인상 효과 실험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이미지 게임을 통해 이미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한 뒤,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몇 가지 실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미지가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모듈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DISC 행동유형(내면의 성격유형에 따른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의 네 가지 기질이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유형) 테스트와 이미지 명함 디자인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미지 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복의 기능에 대한 학습으로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흐름을 구성하였다.

2차시부터 3차시는 의복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착시현상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착시현상을 의복에 적절히 적용하면 의복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의복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은 내용의 양이 많아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수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모듈원의 의복을 직접 코디해주는 코디네이터 활동을 통해 1차시부터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나의 의복을 디자인해보는 활동을 숙제로 제시하여 친구를 코디해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직접 디자인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4~6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주제: 퍼스널 컬러)

4차시부터 6차시까지의 수업은 '퍼스널 컬러'에 관한 수업으로, 퍼스널 컬러 전반에 대해 공부한 뒤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직접 진단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4차시부터 6차시까지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설명식 교수법을 따랐으나, 프로젝트 학습법과 매체 및 도구 활용 학습법에 따라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면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퍼스널 컬러에 대한 수업을 실행할 때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퍼스널 컬러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일 뿐, 이것이 자신을 잘 표현하는 하나 뿐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퍼스널 컬러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개발하였다.

4차시 수업은 컬러 심리테스트와 컬러 테라피에 대해 소개하면서 컬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업에 대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컬러의 3요소에 대한 이론

1~3 Sessions		Image and clothing design			
수업 제목		외모와 이미지,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의 중요성(1차시)			
학습 목표		이미지 형성에 있어 옷차림의 중요성을 알고, 의복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준비		교사	PPT, 학습 활동지	학생	교과서
단계	주요 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인사 출석 확인	▶ 학생들과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선생님과 인사한다.	5분	
	전시학습 확인	▶ 전시 수업내용을 발문을 통해 확인한다.	▶ 교사의 발문에 대답한다.		
	수업의 흐름 안내	▶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전체적인 수업 계획과 본시 수업 활동에 대해 안내한다.	▶ 학습의 과정과 활동을 이해한다.		
	동기 유발	▶ 몇 가지 인물 사진을 보여주고 첫인상(예 상되는 성격, 직업 등)에 대해 발문한다. ▶ 조두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첫인상이 갖는 효과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제시	▶ 본시 학습목표를 칠판 한 편에 미리 판서해두고, PPT 화면에 다시 한 번 제시하여 함께 읽도록 유도한다.	▶ 본시 학습목표를 함께 읽으면서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전개	이미지의 개념과 중요성	▶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 이미지 게임 방법을 설명하고 이미지 게임을 실행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 가장 ~할 것 같은 사람을 지목하게 한다. ▶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영상을 보여준다.	▶ 이미지의 개념을 안다. ▶ 이미지 게임을 통해 이미지의 특성을 이해한다. ▶ 여러 가지 실험과 사례를 통해 이미지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15분	㉔ PPT, 학습 활동지, 영상 (6초의 법칙, 유니세프 공익광고, 옷차림의 중요성)
	활동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 찾기’	▶ ‘DISC 행동유형 테스트’ 방법을 안내한다. ▶ 자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미지 명함 디자인 활동을 안내한다. ▶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면, 자신의 이상적 혹은 상황적 이미지를 의복을 통해 연출할 수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이미지와 의복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설명한다.	▶ ‘DISC 행동유형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행동유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세 가지로 요약해본다. ▶ 이미지 명함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퍼스널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 ▶ 자신의 퍼스널 이미지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한다.	15분	㉔ PPT, 학습 활동지
	의복의 의미와 기능	▶ 의복의 의미를 설명한다. ▶ 의복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발문하며, 의복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 의복의 의미를 알고 의복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다. ▶ 교사의 발문에 대답하면서 의복의 기능에 대해 정리한다.	5분	㉔ PPT, 학습 활동지
정리	정리 및 형성 평가	▶ 학습지에 빈칸이 없도록 채우게 하고, PPT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활동과 과정을 정리한다. ▶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한다.	▶ 빈칸을 채우며 정리한다. -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 ▶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답을 맞춰 본다.	5분	㉔ 지목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차시 예고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다음 차시를 숙지한다.		



수업 제목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2~3차시)			
학습 목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복을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다.			
사전 준비		교사	PPT, 학습 활동지, 노트북 6대	학생 교과서	
단계	주요내용	교수·학습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인사 출석 확인	▶ 학생들과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 선생님과 인사한다.	10분	㉞ 모둠별로 앉도록 지도한다.  ㉞ 중단원 수업 계획안을 칠판에 붙여둔다.  ㉜ PPT  ㉜ PPT, 칠판 판서
	전시학습 확인	▶ 전시 수업내용을 발문을 통해 확인한다.	▶ 교사의 발문에 대답한다.		
	수업의 흐름 안내	▶ 본시 수업의 과정과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다.	▶ 학습의 과정과 활동을 이해한다.		
	동기 유발	▶ 착시현상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사진을 제시한다. ▶ 착시현상과 의복의 연계성을 설명하면서 본시 수업의 내용을 유도한다.	▶ 착시현상 사진을 보고 느껴지는 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착시현상과 의복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시 수업의 의도를 파악한다.		
	학습 목표 제시	▶ 본시 학습목표를 칠판 한 편에 미리 판서해두고, 함께 읽어준다.	▶ 본시 학습목표를 함께 읽으면서 학습목표를 숙지한다.		
전개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가 나타난 여러 가지 사진을 제시하며 의복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 의복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 공부한다.	15분	㉜ PPT, 학습 활동지
	신체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	▶ ‘같은 옷, 다른 느낌’의 사진을 제시하며 얼굴형과 체형에 따른 의복 디자인에 대해 설명한다.	▶ 얼굴형과 체형에 따른 의복 디자인에 대해 공부한다.	5분	
	모둠 활동 ‘나도 코디 네이더’	▶ 몇 가지 인물 사진을 제시하고 발문한다. ▶ 모둠별로 노트북을 한 대씩 나누어준다. ▶ ‘코디북’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인물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의복 디자인을 골라 직접 코디해보도록 지도한다. ▶ 베스트 드레서로 코디한 조를 선정하여 강화물을 제공한다.	▶ 제시된 인물 사진을 보고 적용된 의복 디자인의 요소들이 인물의 신체특성에 맞게 잘 코디되었는지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 ‘코디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물 사진을 세팅하고, 적절한 의복을 골라 직접 코디해본다. ▶ 코디한 의복을 조별로 발표하고, 베스트 드레서를 뽑기 위해 투표한다.	10분	
정리	정리 및 형성 평가	▶ 학습지의 빈칸을 없도록 채우게 하고, PPT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활동과 과정을 정리한다. ▶ 화면에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한다.	▶ 빈칸을 채우며 정리한다. - 모르는 것을 질문한다. ▶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답을 맞춰본다.	5분	㉞ 지목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차시 예고	▶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 다음 차시를 숙지한다.		

Figure 4. The example of the developed teaching/learning plans

수업과 함께 립스틱 네이밍 활동을 넣어 학생들이 컬러의 3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퍼스널 컬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 뒤, 퍼스널 컬러 톤 알아맞히기 활동을 통해 퍼스널 컬러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는

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5차시 수업은 퍼스널 컬러 진단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퍼스널 컬러 진단 전후의 변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도록 설계하였다. 퍼스널 컬러의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해 소개한 뒤, 모델 학생을 정해 퍼스널 컬러를 직접 진단해주면서 퍼스널 컬러의 진단과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모듈별로 진단 트레이프를 나누어주어 서로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6차시 수업은 퍼스널 컬러 진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으로, 퍼스널 컬러 관련 직업의 세계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도록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진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5차시에 진단한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신을 아름답고 개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조언해주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의 소감에 대해 나누면서 퍼스널 컬러 진단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3) 7~8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주제: 건강한 아름다움)

7차시부터 8차시까지의 수업은 ‘건강한 아름다움’에 관한 수업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 봄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였다. 7차시부터 8차시까지의 수업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토의·토론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 이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에 연계되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차시 수업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발문하면서 시작하여 외모와 자신감에 대해 다룬 영화인 ‘I feel pretty’를 감상하고, 영화 감상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보는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8차시 수업은 수업 주제 관련 뉴스 기사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발문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 온 아름다움의 기준을 보여준 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 선언문을 직접 읽으며 발전한 나의 모습에 대해 다짐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3.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효과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 실행 전과 후의 자아정체감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Table 6>에서 보듯이 자아정체감 전체와 모든 하위요소에서 유의확률이 .05 이하로

Table 6. The effect of the classes with developed teaching/learning plans on self-identity (N=183)

	Pre-test		Post-test		t-value
	Mean	SD	Mean	SD	
Uniqueness	3.21	0.33	3.66	0.28	20.19***
Sociality	3.30	0.22	3.61	0.27	20.81***
Autonomy/Confidence	3.38	0.36	3.71	0.46	13.17***
Self-acceptance	3.26	1.01	3.62	1.10	15.99***
Social adaptability	3.53	0.44	3.92	0.43	21.94***
Values	3.23	0.80	3.55	0.94	13.55***
Total	3.32	0.09	3.68	0.16	31.75***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자아정체감 평균값의 사전·사후 변화를 보면, 사전에 3.32(±.09)에서 사후 평균 3.68(±.16)로 향상되었으며( $t=31.75, p<.001$ ), 자아정체감의 모든 하위요소도 평균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수업이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단순 활용에 그치지 않고, 미에 관한 비판적 성찰까지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변화가 큰 요소부터 살펴보면 사회적 적응력( $t=21.94, p<.001$ ), 사회성( $t=20.81, p<.001$ ), 독특성( $t=20.19, p<.001$ ), 자기수용( $t=15.99, p<.001$ ), 가치관( $t=13.55, p<.001$ ), 자율성/자신감( $t=13.17, p<.001$ ) 순이었다. 위의 결과는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이미지의 자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Park(2014)의 연구와 퍼스널 컬러가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Park, Chun과 Yim(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퍼스널 컬러 적용 후 아동의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감이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Joung과 Park(2014)의 연구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소 가운데 사회적 적응력과 사회성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 실행 전과 후의 의생활 태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의생활 태도 평균값의 사전·사후 변화를 보면, 사전에 3.29(±.33)에서 사후 3.56(±.38)으로 향상되었다( $t=27.03, p<.001$ ). 사전·사후 변화가 큰 요소부터 살펴보면, 동조성

( $t=22.20, p<.001$ ), 개성표현( $t=21.01, p<.001$ ), 심미성( $t=16.11, p<.001$ ) 순이었다. 개성표현과 심미성 요소 평균값의 상승과 동조성 요소 평균값의 하락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으로써 이 수업이 청소년의 성숙한 의생활 태도 확립에 긍정적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잘 살려 줄 수 있는 맞춤형 컬러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Han(200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동조성이 낮게 나타나며,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이 옷을 고를 때에도 자신의 장점을 살려 잘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려 하며, 조화롭게 입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 자아존중감을 높여준다는 선행연구(Ko, 2017; Park, 2018; Park, 2019)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2)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감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중학교 가정과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해 4명의 학생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희망한 학생 가운데 남학생 1명(학생 D), 여학생 3명(학생 A-C)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담 내용 분석 결과는 편의상 학생 A부터 학생 D까지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자신감을 높이는 수업, 가치관을 바꾸는 수업, 자아를 깨우는 수업,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의 총 네 개의 범주와

Table 7. The attitudes in clothing life before and after the class (N=183)

	Pre-test		Post-test		t-value
	Mean	SD	Mean	SD	
Clothing conformity	2.67	1.01	2.35	1.02	-22.20***
Personality expression	3.48	0.93	3.81	0.95	21.01***
Aesthetic character	3.13	1.02	3.32	1.08	16.11***

\*\*\* $p<.001$

Table 8. Results of class satisfaction assessment

Category	Subcategory
자신감을 높이는 수업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나도 이쁘다, 이쁘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었어요.”
가치관을 바꾸는 수업	“고정관념 같은 것을 걸러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아를 깨우는 수업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	“앞으로 옷을 사거나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배운 것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개의 하위 범주로 분석되었다.

가. 자신감을 높이는 수업

(1)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외모와 같은 외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반응이 특징적이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학생 A)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학생 B)

“음... 영화에서처럼 저도 약간 자신감이 없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일이 걱정이 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바뀌게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학생 C)

이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영화를 보고 토의를 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자신에 대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바꾸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 결과는 아동에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기반으로 한 베스트 컬러 의상을 착용시킨 후 그들의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감이 상승하였다는 Jung과 Park(2014)의 연구 결과와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활용한 주얼리 색채교육 프로젝트 결과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되었다는 Park(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나도 예쁘다, 예쁘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었어요.”

특히, 한 여학생은 자신이 자신감이 낮았던 이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 나도 예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해주었다고 답하였다.

“제가 좀 자신감이 낮았어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서 좀 더 저를 꾸밀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생각만 달랐더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많이 다른 애들보다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낮다는 것이 ‘다른 애들은 나보다 높다? 나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생각만 달랐더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하고 나니깐 ‘저 사람도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내가 예쁘다고 생각 안하지?’ 의문점이 생겨나서 **저도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어? 나도 예쁘다, 예쁘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했었어요**.” (학생 B)

이 학생을 포함하여 여학생들 가운데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영화 관람 및 토의를 말한 학생들의 근거를 들어보면, 모두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영화 주인공의 입장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의 외모지향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Park과 Lim(2017)의 연구 결과처럼, 여학생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여 자신감을 낮추고 있는 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업이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에게 미의 기준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자신감을 찾게 해준 것으로 보인다.

#### 나. 가치관을 바꾸는 수업

이 수업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의' 활동을 포함하였는데, 토의 활동 전에 주제에 대한 생각을 심화할 수 있도록 'I feel pretty'라는 영화를 함께 감상하였다.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은 영화 관람과 토의 활동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 (1) "고정관념 같은 것을 걸러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면담에 참여한 네 명의 학생 가운데 세 명이 영화 감상 및 토의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았고, 이들은 영화 주인공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인상적으로 보았다고 답했다.

"'I feel pretty'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뚱뚱한 여자 주인공이 사회생활을 할 때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는데, 자기가 예뻐 보이는 줄 착각하게 되면서 생활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뀌기 전후의 두 사진을 보았더니 둘 다 똑같은 자신 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를 바꿀 필요 없이 내가 생각만 달라지면 나도 예뻐 보일 수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 B)

"영화 관람과 토의를 통해서 저를 더 소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저의 자신감이 높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약간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 **고정관념 같은 것을 내가 너무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내 생각에 맞게 걸러서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생 C)

"영화를 보면서 여주인공이 **자신의 관점을 바꿨을 때,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 성공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학생 D)

학생들은 토의에 참여하여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반성하고 성찰하였다. 토의 수업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토의·토론에 기초한 '주거와 거주환경' 단원 수업을 개발하여 이 수업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 학습자의 심층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과 기술·가정 교과와 본질 실현에 효과적임을 밝힌 Kim(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 다. 자아를 깨우는 수업

네 명의 학생 가운데 세 명의 학생은 이 수업이 '나'를 주제로 한 수업이라 좋았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 (1)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학생 A)

"음... 약간 저 혼자서 자랑 잘 어울리는 것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좋았어요.**"

(학생 C)

"보통 다른 수업은 나 자신 하나만이 아닌 모두의 관점으로 보지만 이 수업은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에게 뭐가 잘 맞는지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 D)

앞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면서 드러났던 것처럼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로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수용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Elkind(1967)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설명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 때문에, 타인 역시 자신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as cited in

Lee, 2016, p. 27). 이렇듯, 청소년기는 타인의 관심사와 자신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몰두하는 등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시기이다.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물어본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본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그 어떤 시기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었던 이 수업의 만족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

네 명의 학생이 공통적으로 이 수업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 만족스러웠다고 답하였다. 모두가 이 수업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한 학생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1) “앞으로 옷을 사거나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 수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의 공통된 근거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었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예뻐 보이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의 옷을 따라 입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A)

“제가 처음엔 제 퍼스널 컬러가 뭔지 몰랐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제 퍼스널 컬러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옷을 입으면 괜찮은지도 알게 되었어요.” (학생 B)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고 나서는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색이나 그런 것을 더 잘 알게 되서 앞으로 옷을 사거나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 C)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사회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색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찾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D)

위와 같은 결과는 교과 학습의 목표 및 내용은 학습자 자신에 의해 필요한 가치로 인식될 때 즉, 학습자의 흥미, 목적, 필요, 능력에 따라 알맞게 이루어질 때 학습효과가 증대된다고 밝힌 Kim(2006)의 언급을 지지한다.

(2) “배운 것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이 수업이 만족스러웠다’는 대답을 하였다.

“내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내가 했던 행동 중에? 그에 대해서 연관된 것들을 나에게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 D)

이는 이 수업이 어떤 학생에게는 타인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배움이 있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업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 수업이 개인의 자립적인 삶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가정과 교육의 목표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을 중심으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의생활 수업안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이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자기표현’ 부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한 뒤,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의 변화와 수업 만족감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충북 청주시의 Y중학교 1학년 7개 학급 총 18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 바탕 설문지 조사를 실행하였다.

또한 수업 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해 8차시의 수업이 모두 끝난 후 4명의 학생과 면담을 실행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의 변화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수업 만족감은 면담 과정을 녹음한 뒤,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찰과 분석, 설계, 개발의 순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고찰과 분석 단계에서는 퍼스널 컬러,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과 12종 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백워드 디자인 설계 템플릿에 기초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이미지와 의복 디자인', '퍼스널 컬러', '건강한 아름다움'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이들 주제를 순차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성숙한 의생활 태도 확립'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8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PPT(6개), 동영상 자료(6개), 학습 활동지(6개), 교사용 참고자료(4개)가 포함된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아웃리프와 의복 마련' 단원 수업의 실행 결과,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이 수업이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숙한 의생활 태도 함양에 효과적인 수업이었음을 입증한다. 기존에 미용 및 미술 교과에서 활용되어오던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가정 교과에 적용하면서 가정 교과 고유의 특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수업을 개발하였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통합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아정체감 단원과 의생활 단원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견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아에 대한 여러 견해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하나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Moon, 2005) 자아정체감 단원은 여러 단원 속에 녹아들어가 다양한 영역의 학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자아 관련 개념과 의복 행동

및 태도의 관계에 대해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원의 융합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수업은 자아정체감 단원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른 내용 영역에 융합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실행된 다른 퍼스널 컬러 활용 교육과는 달리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적용을 넘어서 '미'에 관한 비판적 성찰로까지 확장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에 중점을 둔 수업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 수업은 가정 교과에서 개발된 수업이기 때문에 가정 교과의 실천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습득하고 적용하기 전에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안과는 차별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과 의생활 태도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수업이 중학교 가정과 의생활 수업에서 널리 활용된다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셋째,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아웃리프와 의복 마련' 단원 수업 만족감에 대한 면담 결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 수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높은 열의를 보이며 수업에 참여하였고, 이 수업을 통해 나타난 자신의 변화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수업 자료를 찾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 방법은 비교 집단을 두지 않고 실험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험 처치 전후에 검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 때 얻은 효과를 실험처치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실험처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조사법과 면접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동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교 집단을 두고, 학생들의 의생활 행동 변화까지 측정 가능한 연구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Cha, H. Y. (2006).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raining on personal color for the improvement of beauty-related department curriculum for junior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Cho, Y. J. (2002).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ir uniforms and clothing behaviors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st Assoc*, 4, 56-122.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W. W. Norton.
- Fujii, D. (1995). *Fashion coordinate and image color diagnosis*. Seoul: Graphics corporation.
- Go, A. R. (2010). *Effect of personal color on the trend perception and self image: focus on the purchase apperal and make-up cosmet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Han, M. S. (2002).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self-esteem factors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Hong, S. A. (1999). *Self-concepts and clothing choice behavior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Jhun, Y. M. (2002). *The use of visual and social values with the clothing attitudes and bodily attitudes of teenaged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oung, S. Y., & Park, Y. S. (2014). Effect in emotion of children by personal color.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28(4), 25-38.
- Kim, G. O. (2006).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home economics and its application to real life among middle school bo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 Kim, H. H. (200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s attitudes toward clothing & school unifor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18). *Development of design education through personal color system: focused on fashion design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S., & Lee, M. S. (2002). The effect of star-entertainer imitation behavior on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4), 201-210.
- Kim, M. J. (2017). *The effectiveness of the teaching-learning plan for unit of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f home education focusing on discussion/debate 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Kim, S. S. (2016).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needs in relation to the subject matter content of clothes and life style in home economics among middle to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T. H., Park, M. J., & Lee, J. Y. (2007). The interests, application, and learning desire of clothing section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school.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5), 1017-1030.
- Ko, B. K. (2017). *The effect of color art lesson on the self-esteem of learners through the personal color system: focused on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oh, A. R., & Kim, Y. J. (1996). The effects of egocentrism, self-consciousness, body cathexis on adolescence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4), 667-681.
- Lee, C. H. (1991). *The influence of watching television on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nbuk, Korea.
- Lee, E. Y. (2012).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evaluation about personal color typ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E. J. (2016). *Biblical approach to self-centered thinking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focusing on Piaget's theory of self-centeredness and ca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G. I. (2017). *Study on satisfaction of content of 'consumer life of teenagers' unit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subj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 University, Jeju, Korea.
- Lee, H. R. (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dentity, life style and clothing attitude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D., & Han, S. C. (1995). *Human understanding and education*. Seoul: Chungang Jucksung Publisher.
- Lee, Y. G. (2012). *Korean youth welfare theory*. Seoul: Jungminsa.
- Lee, K. H. (2008). *A study on the clothing attitude and buying behavior of middle-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Jeonnam, Korea.
- Lee, K. J. (1999). *A study on the self-concept and clothing-behavior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Y. (1997).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v seen through the clothing behaviors of the new generation: based on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 J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H. (2018). *The effect of personal color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the satisfaction of beauty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551-558.
- Ministry of Education (2015).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Information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74.
- Moon, I. P. (2005). *A study of the ego-identity formation of the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 Moon University, Chungnam, Korea.
- Ohn, J. D. (2011). Exploration of how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 and apply the concepts related to understanding by design in their unit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9(1), 41-66.
- Park, A. C. (1990). *World of identity*. Seoul: Kyoyookbook.
- Park, A. R. (2014). *A study on developing jewelry color-education project program based on personal color system: Focused on arts education of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G. R. (2019). *The effect of personal color on the psychological · physical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Y. S., Chun, H. K., & Yim, E. H. (2019). Qualitative research on motivations, decision-makers, and effects of personal color consultations. *Journal of Fashion Design*, 19(2), 37-56.
- Park, J. H. (2003). *The analysis of mass media experience and the effect of mass media on ego-identity form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buk, Korea.
- Park, J. H. (2006). *High school boys'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according to their physical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 S.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beauty educ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patient with schizophren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A. (2004). *A study on the sex-role identity,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Park, S. T., & Lim, S. O. (2017). Structural correlations of psychological anxiety, appearance-oriented attitude, self-esteem and behavioral problem: Multi-group analysis in gender and grade level.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7(2), 449-466.
- Seo, Y. H. (2018). *The effect of art therapy combining individual and group therapy on the formation of ego-ident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Seo, J. H.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lothing purchase behavior for a group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eo, K. H.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status and career decis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 Shin, H. S. (2002).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color types and color-diagnosis variable factor: The color of makeup, hair and d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Shim, H. S.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s and clothing behavior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Korea.
-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 Alabama: Ass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 Xu, Z. H. (2014). *The effects of the design factors of korean clothing on purchase of satisfaction in chinese consum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Yoo, T. M., & Lee, S. H. (2010). *Practical problem based home economics class*. Seoul: Book Korea.
- Yun, J. Y., & Hwang, C. S. (2007). High school girls' clothing behavior related to their family self-concept and residential area.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5(4), 569-579.
- Youn, H. N. (2015). *Development of design education program to which is applied a personal color system: focused on curriculum jewelry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을 중심으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수업안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이 수업이 중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자기표현' 부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한 뒤, 자아정체감 및 의생활 태도의 변화와 수업 만족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의 수업 실행 결과, 사전보다 사후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의생활 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만족감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옷차림과 의복 마련' 단원의 수업을 중학교 가정과 의생활 수업에서 널리 활용한다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미 있는 수업 자료를 찾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6월 4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8월 26일